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원, 국영수 지난해보다 쉬웠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와 영어, 수학 모두 지난해보다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2~3문제 정도 틀리면 1등급이 나오는 수준이어서 변별력이 다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올해 절대평가로 바뀐 영어 영역의 경우 90점 이상인 1등급과 80점 이상인 2등급 비율이 전체 응시생의 무려 3분의 1 가량에 달해 변별력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29일 치러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수능 채점 결과 국어와 문과생들이 주로 보는 수학 나형, 영어 모두 지난해와 비교해 다소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만점자가 받게 되는 표준점수 최고점은 영역별로 국어는 134점, 수학 기형은 130점, 수학 나형은 135점이었으나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국어는 5점, 수학 나형은 2점이 내려갔다. 이과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 기형은 지난해 수준(130점)을 유지했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 점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나타낸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아지면 높아지고, 반대로 시험이 쉬워지면 낮아진다.

1등급과 2등급을 나누는 1등급 컷트라인은 국어는 130점에서 128점으로 내려갔다. 수학 기형과 나형은 각각 124점에서 123점으로, 131점에서 129점으로 하락했다.

올해 절대평가로 바뀐 영어영역의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1등급 비율이 10.03%(5만2983명)이었다. 지난해 수능에서 90점 이상 비율이 7.8%(4만2867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수험생의 체감 난이도가 낮았다고 볼 수 있다. 90점 이상인 1등급과 80점 이상인 2등급 비율이 전체 응시생의 29.8%(15만8739명)에 달했다.

시기자 평가원 기획분석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표준점수가 내려갔다는 것은 시험이 쉬워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국어는 쉬워졌고, 수학 기형과 나형은 지난해와 유사했다"고 말했다.

다만 "영어는 지난해 상대평가로 시행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절대평가 방식으로 치러진 한국사는 1등급을 받은 학생이 12.84%였고 전체 학생의 48.9%가 4등급 이상을 받았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국어 134 · 수학 기형 130 · 수학 나형 135

지난해 대비 국어 5점 수학 나형 2점 하락

‘절대평가’ 영어영역 1등급 비율 1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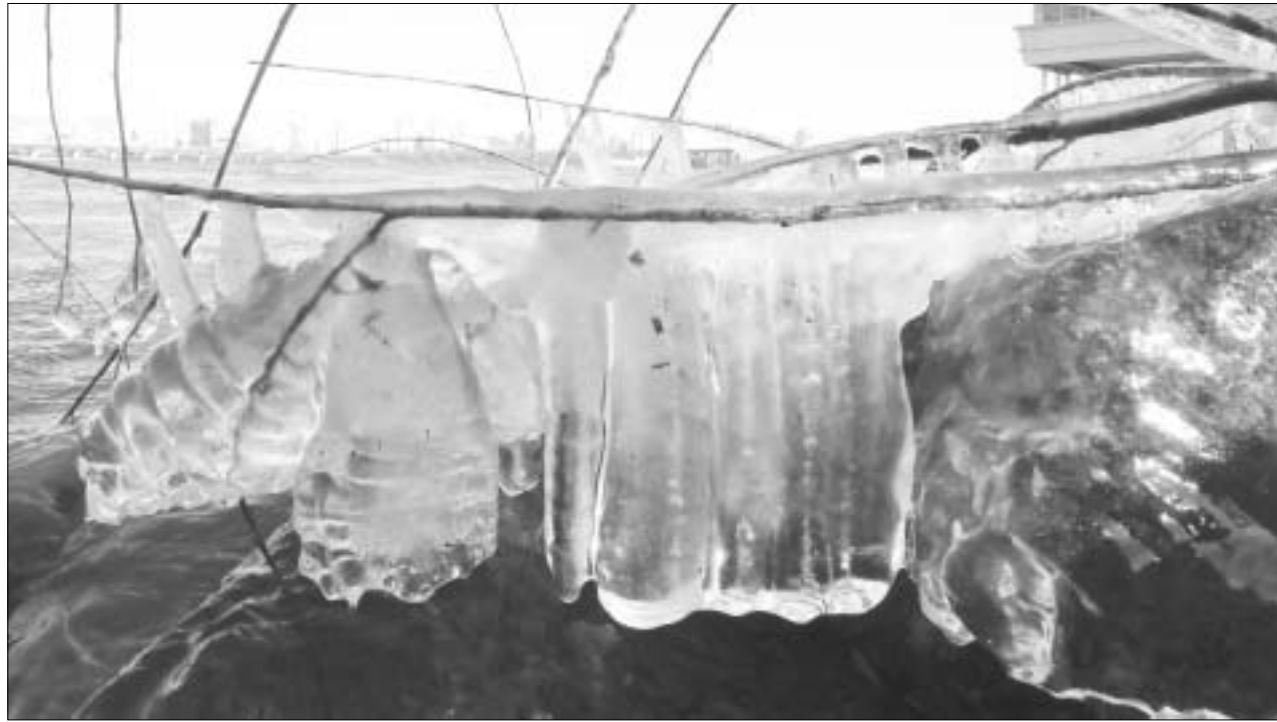
격차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커졌다. 만점자 표준점수 최고점은 사회탐구 영역 중 쉬웠던 생활과윤리가 63점인 반면 어려웠던 세계사는 69점으로 6점 차이가 난다. 또 과학탐구 영역 중 쉬웠던 지구과학II는 66점인 반면 어려웠던 물리II는 71점으로 5점 차이가 난다. 지난해 최고점 차이가 사회탐구 최고 3점, 과학탐구 5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사회탐구 과목별 난도 차이가 다소 벌어졌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9개 과목 중 영어 응시자는 5만1882명으

로 응시자 중 73.5%를 차지했다. 아랍어 응시자 비율은 지난해 71.1%에서 2.4%포인트 증가했다. 아랍어 I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90점인 반면 독일어 I과 프랑스어 I은 67점으로 가장 낮았다.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 선택과목에 따른 유통리가 발생한다.

평가원은 12일 수험생들에게 수능 성적표를 배부한다. 올해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53만1327명으로 재학생은 39만8838명, 졸업생은 13만2489명이었다.

뉴스스



강추위 기습에 ‘공공’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8도를 기록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변에 고드름이 얼어 있다. 기상청은 12일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까지 떨어지며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 했다.

광주·전남 65세 이상 고령자 폐암 발병 최다

광주·전남지역 고령자의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폐암 발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은 고령자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고령자의 삶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광주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11.9%로 2000년대 10만2000명 증가한 17만1800명이었으며 2040년에는 29.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고령자 비율이 12번째다.

65세 이상 여자 100명당 남자는 74.1명으로 2040년에는 86.7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0가구 중 1.7가구가 고령자 가구로 3가구 중 1가구는 1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1인 가구는 10명 중 6명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광주지역 노년 부양비는 16.1명으로 생산가능 인구 6.2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다.

고령자의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정도 높았고, 암 종류별 고령자 사망은 남녀 모두 폐암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순으로 많았다.

광주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동구, 남구, 북구, 서구, 광산구 순이고, 요양병원 수는 서구, 동구, 남·북구, 광산구 순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전남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21.5%로 2000년대 11만3000명 증가한 38만6000명이었으며 2040년에는 41.7%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지역 고령자 인구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데다 0~49세 연령대의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초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용규 기자

IS 대원 6000명 아프리카행 우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와 시리아 등 주요 본거지에서 폐퇴하면서 무장대원 최대 6000여명이 아프리카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스마일 세르쿠이 아프리카연합(AU) 평화안보 감독관은 지난 알제리에서 "아프리카 전역에 긴밀히 협력해 본국으로 귀국한 무장세력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IS에 소속된 3만여명의 외국인 무장대원 중 6000여명이 아프리카 국민이라는 자료가 있다"며 "아프리카 국가로 이러한 무장세력이 돌아오는 것은 국가 안보와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프리카 국가 간 구체적인 대처 방법과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라크 모술, 시리아 라카 등에서 IS가 연이어 물러나면서 특히 IS 무장 세력의 유럽을 향한 관문으로 꼽히는 아프리카 리비아 등이 IS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베를린 지하철장서 탄약 든 가방 발견

독일의 수도 베를린 경찰이 10일 밤(현지시간) 시내의 한 지하철차량에서 탄약 200발이 든 가방을 발견한 뒤 이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수색과 일대의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서 베를린의 주택가인 샬로텐부르크의 빌딩에서 한 주민이 총탄이 든 백을 발견했다고 신고하자 곧 출동했지만, 이 부근을 탐지견들까지 동원해서 수색하고도 더 이상의 총탄과 무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dpa통신이 보도했다.

독일은 지난 해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튀니지 출신의 한 남자가 흉탄 12발을 맞고 군중에게 돌진해 12명이 숨졌던 테러 공격의 거의 1주년을 맞고 있다. 이 테러 공격은 나중에 IS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보안경찰은 앞으로 독일이 또 다른 테러 공격의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한 테러 계획이 감지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美샌디에이고 주택에 경비행기 추락 2명 사망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서 10일(현지시간) 소형 비행기 한 대가 주택에 추락해 2명이 숨졌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샌디에이고 북부 중심가인 클레어몬드에 위치한 한 주택에 경비행기가 추락했다.

이번 사고로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4명 중 2명이 숨지고, 나머지 2명(조종사와 승객)은 화상 등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비행기가 추락한 주택 안에는 당시 아무도 없어 사상자는 없었다.

스웨덴 유대교 회당 화염병 공격 3명 체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루살렘 발언 이후 곳곳에서 항의 시위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현지시간) 스웨덴 제2의 도시 예테보리의 한 유대교 회당이 화염병 공격을 받았다.

당시 유대교 회당에서는 청소년 행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화염병 공격으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다.

목적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유대교 회당 밖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십여명의 젊은이들이 화염병으로 보이는 물건을 회당 정원 안으로 던져 넣었으나 회당 건물이 손상되지는 않았다.

스웨덴 경찰은 10일 유대교 회당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3명을 체포했다.

유대인 단체는 자신들에 대한 이 같은 공격을 "비양심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스웨덴 당국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고 공식 인정한 발언 이후 스웨덴에서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8일 스웨덴 남부 말뫼에서는 200여명이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며 반유대인 구호를 외치는 등 항의 시위를 벌였다.

뉴스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 올림픽 2018. 02. 09~02. 25(17일간)
• 패럴림픽 2018. 03. 09~03. 18(10일간)

PyeongChang 2018
PyeongChang 2018

아제는 평창상입니다